

13기 2년차 사업평가 (초안)

○ 제출: 2025년 1월 5일(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자료 순서

1. 14기1차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일정(가)	03
2. 13기2년차 지부 총괄 사업평가(초안)	04
3. 13기2년차 지부 부서별 사업평가(초안)	13
4. 13기2년차 지부 추가 주요사업 평가(초안)	23

1. 14기1차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일정(가)

지부집행위 일정	지부 일정
<p>-12월 29일(월) 사업평가 및 14기 1년차 사업계획 초안 확정</p> <p>-1월 17일(금) 지부 집단교섭 의제투쟁방침, 지부규정개정 토론안 확정</p>	<p>- 1/05(월) 1차 운영위 회의 및 사무식 (13기 2년 차 사업평가 제출)</p> <p>- 1/12(월) 2차 운영위 회의 부서별 회의 진행(사업계획 논의)</p> <p>- 1/19(월) 3차 운영위 회의 (14기 1년차 사업계획 / 부서별 초안 토론 자료배포) → 부서별 14기 1년 차 사업계획 초안 확정</p> <p>- 1/23(금) 지부 집행위 집중회의 (13기 2년 차 평가 / 14기 1년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집단교섭 의제)</p> <p>- 1/26(월) 4차 운영위 회의 (14기 1년차 예산안, 집단교섭 의제, 규정개정안,투쟁 방침안 배포) → 14기 감사위원 후보 등록공고 예정 → 조합, 지부(지회) 대의원 선거 예정</p> <p>- 2/02(월) 5차 운영위 회의 (사업계획 최종 토론 및 현장토론 취합) → 운영위수련회 전까지 현장 의견 취합</p> <p>- 2/02(월)~2/20(금) → 지부 임원 지회별 화간회의 참석(지부 정대 안전설명)</p> <p>- 2/23(월) ~ 2/24(화) 6차 운영위 회의(수련회) (지부 정기대대 안전 논의 / 확정)</p> <p>- 2/25(수) 13기 1년 차 지부 정기대대 공고 (대회일 10일 전 공고)</p> <p>- 3/03(월) 14기 조합 정기대의원대회</p> <p>- 3/09(월) 14기 지부 정기대의원대회</p>

2. 13기 2년차 지부 총괄 사업평가(초안)

※ 참고: 13기2년차 지부 사업계획

1. 사업 기초

- 조합원과 함께하는 지부사업을 확장하고 집행력 강화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한다.
- 집단교섭 투쟁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노동탄압 전면 중단과 노동 의제를 제기한다.
- 미조직, 이주노동자 사업을 통해 조직확대를 도모한다.
-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정치활동을 높여낸다.

2. 사업 목표

- 1) 조합원 참여 사업 확대
- 2) 지부·지회 집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 3) 2025년 단체교섭 투쟁 전선 형성 및 노동탄압 중단, 노동 의제 요구
- 4) 미조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 5) 정치사업 토대 마련 및 사업 전개

3. 사업 계획

1) 조합원 참여 사업 확대

- 지부 사업 확장을 위한 조합원 및 가족 참여 사업 확대
-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지부 사업 대중화
- 지부 역사 기행을 통한 노동자 의식 함양 활동 강화

2) 지부·지회 집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 지부 담당제 지속을 통한 노조-지부·지회 사업 강화
- 정례적 현장 순회와 간담회, 교육 지원 상시화
- 신규 및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 강화

3) 미조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 미조직위원회 활동 확대 및 대시민 사업 강화
- 지역 공단 집중선전전 및 미조직 조직화 활동 강화
- 이주노동자 조직 및 공동체 프로그램 정례화
- 노조-지부 홍보사업을 통한 대중 활동 실현

4) 2025년 단체교섭 투쟁 전선 형성 및 노동탄압 중단, 노동 의제 요구

- 유동적 정세 속 노동탄압 공세에 대한 조기 투쟁 전선 구축
- 산업전환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방안 의제를 통한 노동조합 역할 강화
- 노동탄압 중단, 노동법(23조) 개정 등 대정부 노동 의제 요구
- 통상임금 확대 적용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모색과 후속 사업 전개

5) 정치사업 토대 마련 및 사업 전개

- 정치위원회 및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 토론 확대
- 진보정치 복원 및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논의체 구성
- 1조합원 1진보정당 가입 추진단 구성을 통한 생활정치 실현

2-1. 13기 2년차 사업목표와 기초

- 13기 2년차는 윤석열 정권의 12.3 계엄령 발포와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척결 투쟁으로 이어지며 시작되었다.
- 계엄 해제와 탄핵 후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주시부는 조직력 강화, 노동 의제 제기, 조직확대, 정치활동 4가지 사업 기초를 확정했다. 13기 1년차에 시도했던 조합원과 함께하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이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집단교섭을 매개로 한 전선 유지와 노동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공세적 지형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미조직, 이주노동자 사업을 확장으로 조직력을 확대하고 유동적 정치지형 속에서 정치사업은 당면한 대통령 선거 국면의 정치활동을 높여내야만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 전년도 조합원 참여사업이 의미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더 확장기로 계획했고 복수노조/소수사업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단체협상 국면에서 투쟁 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한 요구안으로 해외부품 역수입 관련 내용으로 마련했고 퇴직 조합원이 많아짐에 따라 조직력 유지·강화 방안으로 사무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의제를 만들었다. 각 사업장마다 통상임금을 쟁점으로 교섭과 법률적 대응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금체제 개편 모색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2026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으로 정치위원회 구성 및 정치세력화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역 내 활동결의를 높여내 1조합원 1진보정당 가입 추진으로 이어가고자 계획했다.

2-2. 주요 사업 평가

가. 조합원 참여사업 확대

- 조합원 참여사업은 13기 1년차에 이어 2년 차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였다. 올해는 사업장별로 있는 야구 동호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야구 최강자 대회가 추가되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남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등반대회에는 140여명이 참석했고 조합원 가족들과 점심 식사까지 함께하면서 노동 조합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조합원 참여 사업에 대해 참석한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매년 사업이 지속되길 희망했고 더 확대되길 원한다고 소회를 말했다. 참가자 653명 기준으로 1인 1만 7천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조합원과 가족들 사업에 더 많은 예산 배정을 고려해 보면 좋을 듯하다.
- 하반기 전 조합원 대상으로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동지와 전 금속노조 위원장 김호규 두 동지를 초대해 전 조합원 순회 교육을 기획했다. 9월부터 10월까지 총 32차례의 사업장별 순회교육이 진행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노조의 준비와 대응, 산업 전환기의 자동차 부품사의 대응,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등 내용은 적절하고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일부는 교육감 선거 등 과제적 측면의 내용이 와 닿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부 총회 시간을 활용한 교육으로 준비나 결정 과정에 비해 많은

사업장이 참여했고 그동안 진행한 의무교육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높았다는 측면에서 의미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나. 지부·지회 집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 1년 차에 이어 지부 임원과 현안 사업장 담당제를 통해 대응 논의를 지속했다. 특히 대각선 교섭 사업장의 교섭과 현안을 챙겼다.
- 경주지부는 복수노조/소수노조 지원을 위해 조직강화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 매년 임원 수련회를 개최 중이다. 활동시간의 부족으로 주말 모임을 진행했으며 사업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단결강화사업 지원을 통해 소수노조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회들은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장 경영분석 비용 지원과 조직강화위원회 소식지 발간 등 복수노조/소수노조 지원사업은 의미있게 진행 중이다.
- 지회 안정화 사업으로 리어코리아 지회의 교섭 및 노사협의회 지원과 코리아에프티 안성·경주 지회 임금교섭 세부 논의 등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3차례 복수노조 사업장을 찾아 비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를 알리는 커피 트럭 사업을 배치했다.
- 2025년 간부-조합원들이 참여한 행사는 50회이다. 이중 집회가 23회(서울상경 7회)이며 기자회견, 선전전, 교육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참가 연인원은 11,670명이다. 평균 주 1회 민주노총-금속노조 사업에 참여하며 역량 강화와 전국 투쟁 전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금속노조 대의원 간담회를 사전에 배치해 노조 임시대대 안건 설명과 토론을 진행했는데 안건 내용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 지난해부터 제작된 선전 영상 사업은 올해 60여 편이 만들어졌고 정기구독 인원도 100여 명 증가했다. 지부의 노력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회들도 자신의 역사를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이는 지부 영상 사업이 지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2025년 단체교섭 투쟁 전선 형성 및 노동탄압 중단, 노동 의제 요구

1) 2025년 지부 집단교섭 중심 투쟁으로 전선 강화

- 지부 집단교섭은 2025년 4월 18일 더케이호텔에서 상견례에서 교섭원칙 합의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경주지부 2025년 집단교섭 요구안은 5개 의제 ‘조합활동의 보장’(신설안), ‘해외생산물 반입금지’(신설안), ‘자기개발 지원’(신설안), ‘ESG경영도입’(신설안), ‘협약의 유효기간’(개정안)을 그리고 ‘임금인상은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1,300원 정액으로 인상) 요구안’을 교섭 의제로 진행되었다.
- 7월 23일 세진지회에서 재개된 9차 교섭에서 집단교섭 의제가 의견접근되었다. 중앙교섭이 원만히 진행

되지 않아 노조 2차 파업을 결의하며 중앙교섭에서 경주지역사용자 대표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압박했다. 10차 교섭에서 금강지회의 임금인상안이 의견접근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9월 11일 24차 집단교섭에서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일진베어링지회가 임금인상 안에 의견접근함으로써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임금교섭이 마무리되었다. 지부 집단협약 요구안은 4개 조항이 원안 합의되었고 1개 조항은 문구 수정되었다.

※ 투쟁 경과

4월15일	4월 18일	6월 20일	7월 4일	7월 7일~10일	10월 30일
요구안 발송	지부 집단 교섭 상견례	교섭(8차) 결렬 선언	일괄 조정 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89.63% 가결)	조인식

- 7월 말 하계휴가 이후 임금인상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주간의 사업장별 성실 교섭 기간을 설정하고 8월 18일부터 2-2-2-2-4-4-4-6-6 시간 파업을 단계적으로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사업장의 보충교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주간의 집중 교섭 기간을 선정하고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였다. 미타결 사업장은 추가 파업을 진행했고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는 램프사업부 매각보도와 관련하여 사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파업 수위를 추가로 더 높였다.

※ 지부공동파업 지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17	8/18	8/19	8/20	8/21	8/22	8/23
	주야 2시간 (보충교섭 미타결 사업장 + 2시간)	주야 2시간	주야 2시간	주야 2시간	주야 2시간	특근 거부
8/24	8/25	8/26	8/27	8/28	8/29	8/30
특근 거부	주야 4시간 (보충교섭 미타결 사업장 + 2시간)	주야 4시간	주야 4시간	주야 6시간 (보충교섭 미타결 사업장 + 2시간)	주야 6시간	특근 거부
->> 9/01부터 ~ 전면파업						

- 집단교섭 요구안은 운영위와 각 지회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 지부-지회와의 상호 토론이 형식화되지 않고 현장의 요구가 의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지부집단교섭은 각 사업장 순회와 시작 전 현장순회를 진행해 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였으며, 임금 의제를 논의하는 기간은 원활한 교섭 운영을 위해 지부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 완성 사의 역대 최대 이익률과 현대그룹사들의 높은 임금인상 속에서 경주지부 임금교섭도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임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총회 부결 현상이 반복되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만족할 안은 매우 유동적으로 타 사업장과의 비교, 교섭 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아지는 기대치, 사측의 태도 등 많은 이유가 작동된다. 집행부로서는 성실하게 의견일치 안을 설명하고 조합원의 판단에 따라 투쟁과 교섭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지부 집단교섭에서 임금성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었지만 올해 현장토론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토론한 결과 현재의 방식, 즉 지부 집단교섭에서 지회 임금교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임을 재차 확인되었다. 임금인상액의 단순비교, 일률적인 파업 지침, 사업장의 특성 미반영 등을 이유로 개별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부 투쟁력을 고취하고 지부 집단교섭을 통한 교섭 전술이 더 유용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 현재 임금인상 제시안은 기본 시급을 제시하는 방식인데 이는 각종 수당과 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고정 OT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통상임금 소송 확대로 임금 체계가 사업장마다 다름으로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대각선 지회 교섭 지원 전개 영역

- 대각선 교섭 사업장인 청우, 비투지, 플라스틱옴니엄, 두양정공, 현우, 리어코리아 지회에 지부 임원과 상집간부를 배치해 교섭을 지원했다. 대각선 교섭 사업장들도 노조-지부 투쟁 전술에 따라 공동투쟁에 복무했다.
- 플라스틱옴니엄지회는 기업노조와 공동교섭과 공동파업을 진행했다. 단체협약 51개 조항을 개정 및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간부교육시간 확보와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영역을 확대했고 고용안정조항을 강화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노조와의 조직적 통합과 단체협약 갱신 주기를 노조와 일원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 외 지회들은 임금인상 및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라. 미조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 4~6월, 5개 거점 대시민 선전전 사업은 전 지회가 참여하는 시기별 의제 사업을 통해 정례화된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실천의 날 사업 (미조직 조직화 커피 트럭) 확대로 금속노조에 대한 홍보사업을 병행하면서 다가가는 대중 활동 사업에 매진하였다.
- 영천 도남공단내 화신정공 지회가 7월 20일 설립이 되었는데 영천 지역 공단 집중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화신정공 지회 지원과 지역 선전 활동을 위해 8~9월 두달동안 매일 영천공단 집중 선전전으로 연 인원 536명이 33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10월 기초합의서 작성과 최소한의 조직화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 이주 노동자 조직화 확대 사업과 소통강화 영역으로 5월에 제4회 이주 조합원의 날 행사로 고국 음식 대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주 조합원의 날 행사에 지회별 이주 조합원 및 가족들의 많은 참여로 이주-정주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사로 평가된다.

- 13기 1년과 동일한 방식의 이주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이주 조합원지회 소통 공감과 지역 내 이주노동자 조직화 커뮤니티 방안을 추가한 간담회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민주노총 이주센터와 연계한 이주노동자 권리 찾기는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내란세력 척결과 대통령 선거 대응 투쟁

- 윤석열 계엄과 탄핵 이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요구로 투쟁이 시작되었다.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도발하려던 계획, 정치적 정적들을 암살, 또는 체포하려던 계획이 드러난 지금 민주주의의 후퇴로 노동자들에게는 모든 결사의 자유가 가로막힐 상황이었다. 노동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지역 내 민주사회세력, 시민들을 규합해 전선을 형성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 경주지부는 1월 한 달 집행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힘 김석기 사무실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격려를 받으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발레오만도지회와 에코플라스틱지회 등에서 간부들이 자발적 결합을 했다. 윤석열 탄핵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고 지역 내의 국민의 힘 규탄 여론화를 위해 2월에는 시국대회로 매주 금요일 계림사거리에서 집회와 김석기 사무실 앞까지의 행진을 진행했다. 매회 100여 명의 규모가 집결했고 지역 내 단체들도 결합하면서 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 4월 윤석열 탄핵 이후 6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었다. 진보진영의 후보가 결정된 후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대시민 선전전과 세액공제 사업에 집중했다. 그 결과 세액공제로 5,840만원을 모았고 투표결과 전국 득표율 0.97보다 높은 1.27% (2,182표)를 획득하는 성과를 낳았다.
- 전 사업장이 대선 운동에 힘있게 결합되고 일상 사업을 넘어선 적극적인 운동방식으로 전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정치 인식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애초 정치위원회 구성 등 사업 주체를 만들고 2026년 지방선거 대응 준비를 하자는 계획이었으나 밀려온 정세 속에서 집행하지 못했다.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 사업장 현안 투쟁 지원

-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의 램프사업부 매각 투쟁은 4월경 현대그룹사 슬립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대모비스 내 램프사업부 매각 보도로 촉발되었다. 5월 9일 유니투스 4개 지회인 모비스 김천, 평택, 충주 지회를 포함한 공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경주·구미 유니투스 4개지회,모트라스 9개지회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명의 공동대자보 게시를 시작으로 공동과업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8월 6일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 경주·구미·대충 지부 소속의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유니투스, 모트라스 지회의 확대 간부들과 지역 동지들이 참석하여 규모 있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8월 2. 3차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결의하였으나 8월 11일 최종 합의하게 되어 투쟁은 일단락되었다. 합의 주요 내용은 램프사업부 매각은 사실무근임을 확인, 설비투자, 신규 물량 수주 조합 공유, 매각, 정리해산, 업종 변경, 이전, 양도, 외주화, 분할 합병 등 고용에 대한 사항 단체협약 준수 및 합의서 위반 시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투쟁으로 모비스 자회사 지회들의 연대를 형성했고 공동투쟁을 통해 1차 대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남겼다.

- 두양정공지회는 테슬라 물량 중국 현지화 생산의 여파로 인해 경영악화-물량 부족- 잠재적 자본 잠식의 상황으로 인해 24년 11월 5일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부는 지회와 논의를 통해 12월 특별교섭으로 전환하여 물량 안정화, 고용보장 등에 대해 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교섭 과정에서 두양정공 자본의 특성상 엠에스 그룹 내 심원 사업장의 테슬라 물량 수주 등 복잡한 연결고리로 인해 교섭 의견 접근·의견 접근 반복·금전처리 문제 등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25년 3월 특별교섭에서 고용과 물량 확보를 위해 아산공장 이전, 이전 시 이동, 미이동 인원 채우, 기숙사, 신규 인원, 단협 승계 등에 대해 최종 의견 접근 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교섭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이전 비용 등으로 인해 당초 이전계획보다 늦은 10월 3주 차에 13명의 조합원이 엠에스 아산공장에 최종 이동하였다. 12월 지부 운영위를 통해 26년 1월부로 충남지부 편재를 승인하였다.
- 엠에스정밀지회는 매각을 통한 고용 확보를 목표로 임원 3명이 천막 농성장 유지하고 조합원들은 생계 투쟁을 했다. 인수 업체 선정·법원 승인·매각 절차 진행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9월 법원 파산부가 최종 청산 결정을 하면서 매각은 무산되었고 지회는 지회해산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지부는 12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청산 총회 결과가 접수되는 날 지회 해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 세진지회에서 10월 발생한 임금체불과 희망퇴직 모집 공고 등 자본의 도발을 구조조정 획책으로 규정했다. 이미 두 번의 희망퇴직을 통해 조합원들이 대거 퇴직한 경험이 있었음으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부장이 직접 관장하여 대책 논의를 하였다. 토요일 전 조합원 집결, 지부장 명의로 희망퇴직 공고 시 파업 돌입 지침이 이어졌고 일요일 휴무일에 사측의 교섭 요청으로 교섭을 재개, 희망퇴직 방침을 철회시켰다. 지부와 지회가 함께 투쟁하여 자신감과 연대투쟁의 힘을 느끼게 한 투쟁이었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 과정에서 소수의 조합원이 희망퇴직하였으나 대규모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3. 성과와 과제

가. 성과

- 2025년 12월 기준 경주지부는 화신정공지회의 신규가입으로 31개 지회가 되었다. 조합원 수는 4,576명으로 전년대비 99명이 축소되었는데 퇴직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올해 지부집단교섭에서는 지회 단협에서 제한되어 있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지회 상황에 맞게 확대하자는 것과 퇴직자를 위한 자기개발 지원금 확보, 그리고 무차별적인 해외생산물 국내 반입에 대해 일정한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해외 생산물 반입 건에 대해 예민한 발레오만도 사측은 의견일치된 내용을 조인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부집단교섭의 의제가 형식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주지부는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있는 의제를 제기하고 교섭해 왔는데 이러한 취지는 이후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 올해 주요한 투쟁 전술은 7.16 총파업에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13개와 대각선 교섭사업장 10개 교섭권이 있는 총 23개 모든 사업장이 참여했고 참여인원은 4,429명으로 97%가 총파업에 참여했다. 교섭원칙

중 하나는 대표이사가 지부집단교섭 상견례와 해당 사업장 집단교섭 개최 당일 모두 불참할 경우 추가 2시간 파업 돌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디에스시 대표이사가 2회 불참하였고 지회는 교섭원칙에 따라 2시간 추가하면서 투쟁 원칙을 지켰다. 또한 보충교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합의 기간을 선정하고 기간 내 합의가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2시간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일진배어링지회와 현대아이에 이치엘지회가 추가 파업을 진행했다. 임금성 의견접근안이 몇몇지회에서 부결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지부집단교섭 회차는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적극적 전술과 실천 투쟁으로 실질적 교섭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합의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 작년에 이어 조합원 참여사업을 확장했다. 당구, 스크린골프, 야구, 등반대회 4개 종목을 진행했고 연인원 653명이 참석해 지난해 보다 2배가 넘는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가족들과 함께,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부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 이후로도 예산 배정과 다양성을 확보해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사업이다.
- 지부 기획 교육사업을 확대간부를 넘어 조합원으로 확장했다. 전 조합원 순회 교육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전 위원장 두 동지의 강연을 배치했다. 강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정이나 조합원들에게 찾아가는 특별강연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내란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함께 한 달간의 김석기 사무실 앞 선전전과 2월 매주 금요일 4회차 시국대회 개최는 지역 내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 배치가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다.
- 지역 연대사업을 확장한 것 또한 의미 있었다.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인 영덕, 의성, 안동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약 2천만원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조합원 1,500만원 포함)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지역 사회봉사 활동, 경주지부 사용자협의회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장애, 여성, 교육 부분 지원, 민주노총경주지부가 운영 중인 주말농장 사업 등 대시민 사업을 향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과제

-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조합원들을 위한 지부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주지부의 특성상 조합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사업장을 넘어서는 관계성이 깊다. 때문에 지회와 지부 사업에 대해 관심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각종 동아리 행사, 조합원 가족들 초빙 행사, 조합원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전시회, 기획 교육사업 등 다양한 기획이 필요하다.
- 정치세력화 과제는 단지 노동자의 요구를 확장, 실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테두리 안에서 규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내란세력 청산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법 위에서 자신의 지위를 무기삼아 부당한 사적 이익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대다수 소외받은 자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과 지속적인 민주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위원회 구성은 올해 내란사태로 진행되지 못했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정치세력화 투쟁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정치위원회 구성 등 사업을 진척해야 할 것이다.

- 각 지회마다 재정이 축적되고 있다. 투쟁기금은 투쟁의 시기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립한다. 이러한 취지가 잊혀지고 조합원들에게 남은 금액 되돌려주기라는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은 매우 경계할 지점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재정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투쟁 사업장의 조합비가 기준에 맞게 집행되지 않아 강제집행해야 한다는 감사의견 까지 제출되었다. 조합원 대부분이 생계투쟁에 들어간 이후 남은 간부들이 조합비를 임의적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사태의 대책으로 지부가 관장하여 조합비를 관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주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행되기 어렵다. 투쟁사업장의 조합비 사용 절차와 지급 범위, 관리 주체 등에 대해 지부 규칙 제정, 사전 전조합원 동의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14기 임원 동시선거가 진행되었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활동하였다. 투표함 일괄 제작은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조합 후보 등록 후 선거 유세 시작 기간이 부족하여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세와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점과 투표 마지막날 오전 종료로 변경하여 빠른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지회 선거 과정에서 유권해석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는 지회의 '통상적 관례'라는 부분에서 충돌하는 사안이었다. 노조 선관위 지침서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회에서도 유념되어야 한다. 조합에서 지원되는 지회 선관위 지원금 활용과 현장 유세가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별 상주원의 선거 참여의 대한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

3. 13기|2년차 지부 부서별 사업평가(초안)

3-1. 조직부 사업평가

1) 지부/지회 소통 강화 및 조직력 강화

- 13기 1년 차에 이어 2년 차에도 각 지회별 조직, 쟁의, 선봉, 문체 통합 조직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를 진행하였고 매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직담당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지회 현황을 지속적 으로 파악하고 선동 교육을 진행 하였으며 동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조직담당자들은 하나라는 유대감과 결속력을 구축하였다. 2년 차 마지막 수련회 때는 각 지회 일정으로 다 함께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지만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조직담당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직 사업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경주지부의 단결된 조직력과 위상을 높이고 조직부의 제 역할을 해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복수 노조 및 소수 사업장이 속해있는 조직 강화위원회 현안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조직(조직/쟁의/선봉/문체) 담당자 위상강화 및 조직력 확대

- 세진 지회의 일방적 희망퇴직을 조합원들과 함께 희망퇴직 철회 투쟁 승리로 이끌어내 사측의 사과와 체불임금을 정리한 것은 경주지부 또 하나의 성과이며 신규지회 화신정공 설립 후 지회별 릴레이 선전전을 두 달 넘게 진행하였으나 조합원 가입이 저조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14기에는 좀 더 계획적인 전술을 펼쳐야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불법과건 관련해서 다양한 의제와 현상에 대한 조직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순회 투쟁의 경우 금속노조 차원의 기본 대오를 유지할 만큼 조직이 가능해야 하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중요 하다. 또한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방안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을 전면에 걸고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며 소수노조 사업장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소수지회에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비 배분 문제 등 근본적인 개선과정도 필요하며 신규사업장 안정화 관련 대책 방안이 필요하며 사업장 차원에서 스스로의 사업과 고민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조직 내에서 했으면 한다.
- 13기 경주지부는 문화사업으로 조합원 참여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지부-지회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좀 더 친밀함과 단결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등반대회, 당구대회, 스크린골프대회, 야구대회, 이주 조합원 고국 음식대회 등 많은 사업을 13기 1년 차에 약 300명 2년 차에도 추진하여 진행하였고 각 대회 마다 100여명 이상 참여하여 총 650명 정도 참여하여 조합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 앞으로도 조합원 참여사업은 여러 종목들로 바뀌가며 활발하게 지속되길 바라며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조합원 참여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부 문화사업으로 복수노조 특화사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실천 하기 위한 추진력과 예산 증액 또한 필요하다.

3) 복수노조, 대각선 사업장 조직력 강화 및 사업 강화

- 미조직부서 사업인 “찾아가는 조직화 사업”을 조직 강화위원회와 연계 사업으로 “찾아가는 조직화 사업 (부제:금속노조 커피 트럭)”을 복수노조 사업장 위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금속노조 커피 트럭”을 진행하면서 본 현장 분위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어색함이 많이 누그러지고 가벼운 대화를 시작으로 한발더 다가서며 서로 웃고 즐거워하며 조합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는 긍정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찾아가는 조직화 사업 (부제: 금속노조 커피 트럭)”사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한 사업비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3-2. 조직강화위원회 사업평가

- 13기 2년차 조직강화위 회의는 하반기 임원수련회를 포함 총 8회를 진행하였으며 상반기 수련회 및 민주노총과의 연계 사업인 이주 및 정주, 대각선 사업장 위주의 여름캠프를 계획하였으나 대규모 산불로 인해 취소되어 조직강화위 상반기 수련회와 여름캠프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을 돕고자 지원 방안으로 각 지회에 요청하여 헌 옷과 라면, 생수 등 각종 지원물품과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을 통한 지원 사업을 안동, 산청, 영덕 등 산불피해지역에 지원하였다, 이와 별개로 여름캠프 참여율이 매년 낮아지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 조합원 동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름캠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며 조직강화위원회의 수련회 역시 하반기에 한번만 진행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미조직부서와의 연계로 진행한 “찾아가는 조직화 사업”을 조강위 내 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아 커피트럭을 진행 하였고 1년차와 마찬가지로 1시간도 되지 않아 준비된 음료가 모두 소진되어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14기에도 금속노조 커피트럭을 기다리는 동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여 “찾아가는 조직화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하며 금속노조 커피트럭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길 바라고 좀 더 많은 지회를 방문하였으면 한다.
- 조직강화위원회 사업장 중 2018년 3월에 금속노동조합을 설립 후 7년간 함께 해온 두양정공지회가 회사의 물량감소 및 매출감소 등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공장 매각으로 결정하였으나 새롭게 인수한 충남아산의 명신산업과 고용승계를 위한 교섭을 경주지부와 함께 수차례의 교섭으로 고용승계를 쟁취 하였다, 합의를 이끌어낸 두양정공지회는 2025년 10월 경주지부를 떠나 2026년부터 충남지부로 편입하게 되었다, 7년이라는 세월동안 경주지부는 두양정공지회와 함께 소통하며 투쟁을 이어왔으나 회사의 불가피한 이전으로 14기 부터는 충남지부로 편성되는 것이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충남지부에서 더욱 가열 차게 투쟁하는 두양정공지회가 되길 바라며 지회의 활발한 조합 활동과 조직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 14기에는 2025년 7월 20일 신규지회로 설립된 화신정공지회가 조직강화위원회 성원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장기집권 속에서 피어난 금속노조는 5명으로 시작해 1명의 이탈로 현재 4명이 유지되고 있으나 경주지부와 소통과 연계사업을 통해 화신정공지회의 금속노조 조직 확대와 더 나아가 대표

노조로 쟁취해 나가길 기대한다.

- 2025년 11월 23일 전주 대주코레스 본사에 전주 코레스지회 설립 보고대회가 있었다, 한노총 130명과 비조합원 80명 중 16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익일부터 조직확대를 위한 조합원 가입 선전전을 돌입 하였다. 조합 설립 전 주인 지난 목.금 부터 전주 본사에 의용노조 도발이 시작 되었고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 되었지만 금속노조의 푸른 깃발을 지키고자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있는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3-3. 교육위원회 사업평가

- 13기 2년 차 교육위원 회의는 수련회를 포함하여 연 8회 진행되었고, 1년 차와는 달리 회의가 없는 달에는 교육역량 강화훈련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못했다.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무난하다는 평가이지만 지부 교육위원회가 지부 30개 지회 중 전담 교육담당자가 있는 지회가 9곳, 교육과 선전을 겸하고 있는 지회가 2곳, 지부 교육위원만 있는 지회가 1곳으로 구성되어 사업장으로는 12곳만이 교육담당자 혹은 교육위원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 사업장에서 준비과정부터 의견수렴과 사업 진행과 수정·보완,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측면이 있다.
- 지부 교육위의 교육사업은 대체로 원만했으나, 교육위원회가 지부 교육사업의 전반에 대한 관장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회 교육담당자들은 여전히 역량 강화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노력이 필요하며, 여러 주제보다는 한 가지 주제로 다른 동지들과 비교하면서 고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신입간부 교육 시에는 진행 도우미로 참여한 교육담당자와 교육위원들의 안내자 역할을 좀 더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신입간부 교육 때 노조간부 기본과정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많았다. 조합원 의무교육이나 교섭위원 교육, 확대간부 교육 등에서 교육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되도록 주제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그렇게 할 때 교육위원회의 활동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용 준비와 역량 강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올해는 탄핵과 대선 국면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한 사업 이외의 교육을 많이 진행했다, 특히 지부주관 조합원 교육만 3차례 실시했는데 긴급한 정세와 시기 문제 등으로 지부 교육위원회가 내용을 준비하지는 못했다. 간부교육도 신입간부 교육을 제외하면 확대간부 교육이나 교섭위원 교육은 교육 주제와 프로그램을 회의에서 논의하는 정도 수준에 그쳤다. 조합원 교육도 월별로 보면 여전히 이월하거나 미실시한 지회가 많은 편이다. 지회별로 교육담당자가 미정이거나, 교육사업에 대한 역량의 차이 등 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교육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4기에는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4. 선전부 사업평가

- 소식지의 경우, 주 1회 발행 체계를 어느 정도 안정화하며 윤석열 탄핵 · 여성의날 · 산안법 등 주요 사회 · 노동 현안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공유한 점은 성과였다. 특히 교섭국면에서는 속보를 집중 발행, 조합원들에게 주요 쟁점을 신속히 전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다만 발행자체에 쫓겨 경주지부가 조합원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부재했다는 점, 실제 조합원이 얼마나 읽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루프가 거의 없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독자 설문, 현장 인터뷰 등 조합원의 반응을 수집하는 구조를 만들고, 단기 속보 중심이 아닌 기획형 연재 코너(조합원 이야기·현장속으로 등)를 강화해 ‘읽히는 소식지’로 전환해야 한다.
- 영상소식지의 경우, ‘경주지부가 간다’ 시리즈가 EP.11~21까지 이어지며 안정적인 영상브랜드를 구축한 것은 중요한 성과였다. 투쟁·교섭·연대 현장을 영상으로 전달해 SNS 채널(유튜브·텔레그램·인스타)에 대한 확산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촬영·편집 인력 및 역량의 한계로 인해 영상 품질의 편차가 존재하고, 포맷·서체·썸네일 등 표준화가 부족해 경주지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못했다는 부분은 한계로 보인다.
- 더해서 구독자 수가 700여명으로 늘었고 영상당 조회수가 평균 1500회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조합원 수에 비해 시청율과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이벤트의 진행과 영상 인트로·자막 스타일·썸네일 등의 포맷을 표준화하고,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브리핑·지회인터뷰 등 참여형 콘텐츠를 도입해 조회수 만이 아니라 ‘공감’ 적인 부분을 강화해 조합원들이 시청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 올해 새롭게 발행한 기획소식지 ‘메탈블러드’의 경우, 신규 발행 사업으로서 기존 소식지에서 다루지 않은 현안을 다룬 점은 중요한 시도였다고 보여진다. 기존 소식지와 달리 기획형 콘텐츠로 조합 내외부의 관심을 모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행 주기가 불안정하고 예산의 문제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오프라인 간행물 형태로 제작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생각된다. 향후 분기별 고정 발행체계를 확립하고, 각 호마다 핵심 주제를 명확히 설정해 정기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기획소식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존 소식지가 메탈블러드의 역할을 흡수하도록 ‘통합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고민해봐야 할 지점으로 보인다.
- 2025년 교육은, 선전 역량 강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나, 회의 중 단발성 ·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교육의 깊이 · 체계 · 정례성이 부족했다. 2026년에는 신규 부임 선전부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교육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보수 · 심화교육으로 이어지는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6년은 지부의 선전부장이 지부의 인사변화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첫 해가 될 예정이므로 교육이 선전부의 결과물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장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올해 홍보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조합원 참여 부족·피드백 부재·발행주기 불안정 등이 존재했다. 동시에 SNS·영상 확산 가능성, 조합원 참여형 콘텐츠 확대라는 기회가 존재하는 반면,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력 및 자원 부족은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홍보체계 통합(지면 · 영상 · SNS), 조합원 참여형 홍보 강

화(설문 · 코너 · 현장제보), 브랜드 정체성 구축(컨텐츠 통일성), 정례교육이 핵심 과제로 제안되었다. 나아가 올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부, 지회의 선전부 협업 구조를 “함께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3-5. 총무부 사업평가

- 13기 1년 차에 이어 지회별 회계기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회의 시 사업장별 회계기준을 점검하고 지부 감사위와 소통을 통해 정립해 나갔다.
- 조합과 지부의 회계업무와 결제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지회 단위의 회계 시스템에 대한 변경 문의가 있고, 추후 변경 시 지부 총무부의 업무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부 총무부는 개별적 지원을 통해 지회들이 노조의 방침에 따라 회계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무장단의 교류를 통해 일상적인 지회 활동을 꾸준히 공유하며 사업장 간 소통을 강화해 왔다.
- 정례화된 회의의 성원 불참은 각종 사업점검에 대한 부족함으로 다가왔다. 회의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지만 이후 지회 일정에 따른 불참이 많았다. 토론을 통해 전반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6.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평가

- 2025년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8차례 정례화된 회의 및 수련회를 통하여 사업장별 노동안전보건 사업 체계 및 사업장별 안전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토론 하였다. 이를 통해 단발적 회의체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조직 체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사업의 경우 추진 현황 점검에 그쳤으며, 개선사항 공유와 후속 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실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조합원 건강권 쟁취 전략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노안담당자 맞춤형 교육 + 안전체험실습 활동은 노안 간부들의 역량 강화에 전문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교육 후 습득한 지식을 2025년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사업에 주도적으로 실시하지 못 한 사업장들도 있어 좀 더 체계적인(멘토링, 현장적용 등) 후속 사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부 중심의 노안 사업에 대하여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소식지 발행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4회 발행에 그치며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에는 미흡하였다. 각 사업장에서 이미 다양한 안전예방 유인물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부 노안 소식지는 기획 중심의 차별화된 내용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추진해야 될 것이라 판단된다.
- 산재처리 지연, 불승인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전략 마련은 금속노조 차원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노안 과제이다. 경주지부 노안위는 회의체계속에서 데이터 수집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제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 처리 단축 등 제도개선의 실체화된 투쟁 전술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 전술에 앞서 지역에서 선제적 투쟁 전술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 13기 2년차 사업은 ‘근원적 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활동강화, 체계 구축, 역량강화, 산재 불승인대응’을 주요 계획으로 사업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구체화·지속성 측면에서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차기 사업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전략과 실천 중심의 계획을 반영하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 판단된다.

3-7. 정책·법규·조사통계부 사업평가

- 지부 정책, 법규, 조통 담당자회의는 8회 진행이 되었다.(수련회 상, 하반기 포함) 정기적인 부서 회의를 통하여 사업장의 현안문제를 공유하였고 조합의 정책사업(조사사업 및 교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다만 아쉬움 부분은 13기1년차에 비하여 회의 및 수련회에 성원들의 낮은 참석율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 24년 사업장 경영분석은 9개 사업장이 사업장별 신청을 하여 지회일정에 맞추어 진행을 하였고 매년 진행을 해오던 장석우 회계사(금속법률원)의 지역 순환근무로 인해 올해는 울산 회계법인 00 조해용 회계사 동지가 진행하였으며 전체적인 평가는 조합원들에게 쉬운 설명으로 좋은 평가가 있었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경영분석이 진행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수 없는 부분의 한계가 있으며 매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영분석 사업의 실효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 대각선, 소수 사업장인 비투지, 코레스, 현우지회는 정책사업비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하였고 해당사업장 조합원 및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재무 상황을 설명하고 공유를 한 부분은 의미 있었고 조합원들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금속노조의 조사통계 사업으로 2025년 임금체계실태조사 진행하였다. 30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통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소수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의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어려움이 확인이 되었지만 지부 차원의 도움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사업장별 영향 체크리스트 작성사업을 진행하였고 16개 사업장이 제출을 하였고 그 결과 경주지부의 다수의 사업장은 관세영향이 없는 내수 사업장이 많이 있음을 확인 할수 있었다.
- 경주지부는 사업장별 단, 협을 취합하여 모음집을 제작, 발간하여 사업장별로 배포하였다. 기존의 비교자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 보완 하였고 2024년 지회 단체협약 모음집으로 발행 하였다.
- 2024.12.19.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금속법률원과 지회별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통상임

금 적용 유.무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여 해당 사업장 보충교섭 및 실무에서 판결을 적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 금속법률원(경주분소) 고문계약 체결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일반 생활법률 상담(전화, 방문)은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여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소하였다. 하지만 생활 법률상담이 일과시간에 집중이 되어 경주법률원의 동지들의 업무가 가중이 되는 문제는 해결 해야할 숙제이다.
- 발레오만도지회,에코플라스틱지회의 통상임금 소송을 법률원과의 계약 및 승소로 이어지며 금속법률원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3-8. 여성위원회 사업평가

- 여성위원회의는 7회차 진행되었고 평균 5개 지회 9명이 참석했다. 전년도에 비해 참석율이 떨어졌다. 연임한 여성부장동지들이 많아 사업의 집중도가 높았고 여성사업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여성간부들의 관계성도 밀접했다.
- 상반기 여성위원회 수련회와 하반기 여성 간부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련회는 도자기 체험 행사를 배치했다. 여성위원회나 여성간부들의 프로그램과 동선은 지회 내 여성조합원 행사 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고려가 아무거나 또는 노조 활동과 관계없는 활동으로 폄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간부 수련회를 상반기에 개최해서 친밀감을 높이는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배치하기가 어렵다. 여성간부들이 사업 초기에 멤버십을 형성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필요하다.
- 2025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사업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진행되었다. 여성혐오 정책으로 일관되었던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상징하는 보라색이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경주지부는 현수막(13개지회 14개)과 스티커(2천매), 특별소식지를 만들었고 공동행동 명의로 경주시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회마다 꽃, 빵, 음료 등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다. 금강은 샌드위치와 음료를 여성조합원들에게 전달했고, 현대아이에이치엘은 전 조합원과 식당, 청소, 경비 등 모든 분들에게 빵과 음료, 교육지를 배포했다. 다스는 여성조합원과 하청, 청소, 매점 등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떡과 유산균음료를, 인지컨트롤스는 떡과 볼펜을 전 조합원에게 나눴고 아이티더블유지회는 조합원과 간접부서까지 간식꾸러미를 나눴다. 발레오만도지회도 여성조합원 네분에게 꽃다발을 전하는 등 여성 투쟁의 날을 기념했다. 코리아에프티지회는 신규지회임에도 별도 행사까지 진행했다. 이러한 나눔 행사는 여성조합원 뿐만 아니라 식당, 청소 등 간접부서와 하청업체들까지 배포되어 그 감사함과 소중함, 노동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 3월 7일 개최한 기자회견은 “안전한 일터, 평등한 일터, 성평등한 미래”를 주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발언 전체를 여성으로 구성했다.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경북지부와 민주노총경주지부가 매년 진행하는 기자회견에 여성들의 참여가 적다는 의견도 있다.

- 내년에는 여성의 날 현수막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지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을 듯하다. 여성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모두의 목소리를 담는다는데 의미를 두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 5.27 임금차별타파 기자회견과 6월 최저임금캠페인, 10월 성평등어우러짐 축제는 경주여성노동자회를 중심으로 지역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향후에도 발전 강화시켜 지역 연대 틀을 공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부에서 진상조사는 3건이 진행되었다. 그 중 한 건은 ○○지회 성폭력사건이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였다. 2차 가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건이 종료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지원과 응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위원 회의의 내용 강화, 여성간부들 간의 친밀도 강화, 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역(여성)단체들과의 사업, 이런 4가지 사업을 축으로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성평등 인식의 확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1년 단위 사업이 아니라 기수별(2년)을 놓고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이 다.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숙고해야 할 것이다.

3-9. 미조직위원회 사업평가

1) 미조직위 회의

- 13기 2년차 미조직위원회는 1월 8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4차 회의로 마무리 되었다. 1년차에 이어 2년차에도 부서별 회의를 격월, 수련회 2회 진행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 4~6월 시기별 집중의제 대시민 선전전, 6.3대선 기획, 8차례의 미조직 조직화 커피트럭, 8~9월 영천공단 집중 미조직화 선전전으로 기획되고 미조직위 사업을 확장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 성원으로는 17개 지회로 참석하였고, 8~9월 영천 도남공단 집중선전전에는 전 지회 결합으로 화신정공 지회 안정화에 도모하였다.
- 13기2년차 미조직위원회 커피트럭 조직화 시기를 폭염전 6~7월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많은 공단 노동자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기설정이 되었다.
- 14기 미조직위 활동은 기존의 미조직 실천 활동과 함께 좀더 다양한 대시민 활동의 영역을 고민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민주노총 경북본부 미.비특위 사업

- 13기 1년차와 동일하게 민주노총 경북본부 미.비특위 회의와 실천 사업에 지부미조직 담당임원.부서장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 2년차 본부 미.비특위 사업은 “청년세대 찾아가는 민주노총 청년 노동인원 사업” 세부 실천으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청년 노동인권 사업으로 설정 하고 경산 영남대 중점으로 실천 활동을 전개 하였다.
- 지부 미조직위 성원 전체가 하반기 본부 사업에는 일정 중복으로 적극적인 결합은 하지 못하였다.
- 본부 미.비특위 사업이 영역이 광범위 하고 특정 산별 조직의 미조직위 사업으로 국한 되지 않는 만큼 좀더 많은 성원 참석으로 결합 되는 사업으로 확장 되어야 할 것이다.
- 1년차 에도 평가된 총연맹-본부-지역지부로 이어지는 통일적인 미조직 실천사업의 담보와 지부별 결합인원 부족등 한계의 문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3) 노조-지부 미조직위 사업 강화 영역

- 13기2년차 노조 미조직전략위 사업의 주요한 영역은 3기전략 사업에 대한 후속 논의와 세부 실천방안으로 설정되었다.
- 노조결합사업으로는 대구지역본부에서 진행한 미조직 조직화 학교 대회에 미조직위 성원이 결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2차례 노조/지부 수련회 및 간담회를 통해 노조 미조직전략 사업의 이해와 지역 미조직위 사업에 대한 공유로 압축되었다.
- 노조/지부 확정된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적극 결합 하였고 신규노조 조직화 기본 자료 재편집 발간에 지부 미조직위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
- 노조/지부 미조직 사업의 특성상 중, 장기적인 사업의 영역으로 지속적인 실천이 담보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 13기2년차 3기 전략조직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결합력을 높여가는 사업인 만큼 14기에도 미조직전략사업이 노조/지부 미조직위원회/지회 사업과 병행될수 있도록 넓혀 가야 할 것이다.

4) 총괄 평가

- 13기 2년 차 미조직위원회는 7차례 회의와 2차례 상·하반기 수련회로 진행되었다.
- 지부 미조직위원회 중심으로 미조직 조직화 실천사업과 홍보사업을 병행하였고, 공단 미조직 조직화 커

피 트럭, 찾아가는 기획사업인 지부 내 복수노조 사업장 지원 사업 확대, 공단별 현수막 게첨사업, 유료 게시대 홍보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 4~6월 시기 집중 의제 대시민 선전 사업은 매년 전체 지회 상근자 동지들이 실천하였고, 5월 3주차부터 6월 첫 주까지 조직대선 선전전과 조직화 사업을 병행하였다.
- 1년차에 이어 미조직위원회 사업이 전체 지부 미조직 조직화 사업으로 실천되었다.
- 13기2년차 이주조합원 사업은 ‘고국음식 대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제 4회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고 6월에 진행된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는 이주조합원/지회간의 의견소통과 지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방안을 알아가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 13기 1년 차에 설정한 영천공단 집중 조직화 사업을 통해 화신정공 지회가 설립되었고, 설립이후 8~9월 매일 영천공단 집중 조직화 사업을 통해 10월 기초합의서 작성으로 소수지회지만 사무실, 타임오프,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 영천공단 내 기업노조 및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집중 실천 사업을 14기에도 힘있게 진행해 갈 예정이다.
- 14기 미조직위원회 사업은 13기에 제출된 평가와 과제를 넘어 중.장기적인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통해 선전방식의 구체화, 이주조합원의날 행사 확장등 금속노조에 대한 이미지 구축사업도 주요한 사업으로 매겨진다.
- 14기에도 지부 미조직위원회 활동 강화와 실천 사업확대로 조직화 사업에 노력할 것이다.

4. 13기|2년차 지부 추가 주요사업 평가(초안)

4-1. 5.18 민주항쟁 정신계승 광주 역사순례 사업평가

1. 취지

- 2023년 광주항쟁 역사기행을 실시했고, 2024년에는 여수순천항쟁에 대한 기행이 진행됨. 참가자들은 평가를 통해 역사기행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것과 특히 광주항쟁에 대해 큰 감동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2025년 45주년 5.18 광주항쟁 순례는 비상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논란, 극우 진영의 대두 등의 현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에 대해 다시 생각할 보는 계기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2.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16일(금) ~17일(토)
- 장소 : 광주 일원- 일정표

시간	5월 16일(금)	비고 / 주소	
08:00 ~	경주, 울산 출발	3시간 소요. 30분 휴식	
11:30 ~	점심 식사	단체식 (지부 예산) 서진주 한정식	광주 북구 석곡로 630
13:00~14:00	국립 5.18 민주묘지 헌화 개별 묘소 참배	국립묘지관리소 예약완료 현수막, 깃발	광주 북구 민주로 200
14:00~15:30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 (망월동 구묘역)	해설-광주전남지부 참배 진행 (지부 진행)	광주 북구 수곡동 산29-2
16:00~17:00	상무대 오테		광주 서구 내방로 111
17:00~19:00	저녁 식사	단체식 (지부 예산) 사계진미술포럼갈비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37
19:00~20:00	숙소 이동 후 휴식	금호화순스파리조트	전남 화순군 백아면 옥리길 14-21
시간	5월 17일(토)		
08:00~09:00	아침 식사	개별 식사 (리조트 내)	
10:00~12: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 전남도청 일대	해설-광주전남지부	광주 동구 금남로 221 일대
12:30~15:00	점심 식사 및 휴식	개별 진행	
15:00~16:00	전국노동자대회	광주역	광주 동구 금남로 245 근방
16:30~	경주, 울산 복귀	휴게소, 개별 저녁식사	

3. 참가 현황

	지회명 (소속단체)	참가자수
1	에코플라스틱	3
2	리어코리아	4
3	디에스시	4
4	엠에스	4
5	다스	2
6	KBI동국실업	1
7	코리아에프티	4
8	발레오만도	4
9	우영	2
10	세진	4
11	일진	4
12	플라스틱옵니엄	2
13	현대아이에이치엘	8
14	민주노총경주지부	1
15	경주여성노동자회	1
16	경주지부	11
	합계	59

※ 60명 이내로 모집(버스 2대)하고 지회별 2인 우선 배정 후 미참가 지회 몫을 추가 배정함

4. 평가

- 지부 역사기행은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었다. 애초에는 12기에만 진행하려 하였으나 광주항쟁 역사기행에 대해 다시 진행하자는 요구가 있어 배치되었다.
- 설문조사 결과(참가자 중 46명 응답) 2025년 광주항쟁 순례에 대한 일정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이었으며 경주지부에서 역사순례를 계속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지속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1박 2일 일정이 너무 빠빠하다는 의견과 시민대회까지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는 평가와 더불어 대체적으로 5.18 묘역 참배가 인상적이었다는 내용과 열사들의 항쟁 정신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버스 2대 차량을 목표로 최대한 다양한 지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지회 참여가 생각보다 적어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와 집행위가 추가배치되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차기에는 버스 1대와 선발대로 구성하고 지회는 1기와 2기를 나누어 참석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겠다.
- 참가자 1인에 10만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임으로 신규참가자 중심, 이탈자 없이 집중할 수 있는 1박2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지가 있는 자발적 참여자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금속 사회봉사단 사업평가

1. 운영목적 (취지)

- 경주지역 소외계층(연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재능 나눔을 통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인식제고 및 경주지역 내 위상을 높이기 위함.

2. 운영(안)

-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1365포털) 단체등록(약칭. 금속경주봉사단) 후 기본교육 이수(1시간)
- 매월 1회 정기 봉사활동 공지 [텔방소통]

3. 인원구성

- 우정식 부지부장(봉사단장) / 손해용 정책부장(총무)
: 금속 경주지부 조합원 자율적 모집하여 21명으로 구성됨(민주노총,공공 4명포함)

4. 활동영역

- 경주지역 소외계층(연대) 지원사업, 환경지킴, 행사지원 등

5. 참석 현황

봉사 일시	봉사 장소	참석명단	인원
02월29일(일) 10:00~12:00	경주 황리단길 일대	우정식, 손해용, 박규환, 최운정, 최해술, 정진홍, 이재욱, 조혜정, 황세정, 손원진	10명
03월30일(일) 10:00~12:00	황성공원 일대	우정식, 손해용, 이명호, 노태현, 이영하, 최운정, 최익선, 황세정, 정진홍, 안익선, 전동훈, 박규환, 설영석, 김창우	14명
04월27일(일) 10:00~12:00	불국사 주변일대	설영석, 최익선, 이주은, 최운정, 안익선, 이명호, 조혜정, 이영하, 전동훈, 우정식, 손해용	11명
6월01일(일) 10:00~12:00	나산해변 일대(양남)	최해술, 정진홍, 김창우, 황세정, 이주은, 조혜정, 전동훈, 손원진, 안익선, 최운정, 박현숙, 손해용, 설영석, 박규환, 이재욱, 이명호	16명

6. 활동 사진



7. 평가

- 2024년 10월 27일(일) 1차 정기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금속노조 경주지부 봉사단 활동이 13기 2년 차에 들어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 봉사단 활동은 매월 1회(마지막 주 일요일) 활동을 목표로 4차례 진행되었다.
- 경주지역의 특수성인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평가와 함께 격려도 받으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 하지만 7월부터의 혹서기 및 조합 동시선거로 인한 하반기 활동을 진행하지 못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계절적 요인 등을 극복하고 지속적 활동을 위한 활동 영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정화 외에 할 수 있는 봉사업무를 지속적으로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인 봉사단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3. 6.3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평가

1. 조기 대선 관련

1) 기초

-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파면을 통해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사회진보연합회의에서 논의한 진보 후보 지지 및 실천 활동 전개

2) 목표

- 내란 청산, 사회대 전환, 진보정치 복원

3) 조직 및 준비 과정

- 지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후보 권영국 지지 및 결합 관련 토론
- 진보당 김재연 후보 사퇴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공식지지 결의
- 지부 운영위 회의를 통한 지부중심 선거운동 결합 및 지회별 세액공제 사업 진행 확정

4) 실천 활동

- 5월 지회조합원 의무 교육시 권영국 후보지지 홍보
- 지회별 5월 20일 이후 출.퇴근선전전 및 지지 현수막 게시

- 민주노총 경주지부, 지부 집행위 중심 대선 운동 결합
- 지회별 세액공제 사업 진행

5) 21대 대선 결과(경주)

후보자	지역	득표율	득표수	비고
권영국	경주	1.27%	2,182	
	전국	0.97%	344,150	

6) 대선 운동 결합 결과

- 일자: 5월 20일~ 6월 2일
- 시간: 출.퇴근 선전전 중심
- 장소: 경주 주요 네거리 및 양남 한수원 주변

일자	장소	결합단위	비고
5월 20일 (화)	계중 네거리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12명, 민주노총:12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8명, 발레오만도:5명 - 민주노총:1명	38명
	황성 5일장	- 금속경주:8명, 발레오만도:5명 - 민주노총: 4명	17명
5월 21일 (수)	5개 주요 거점	<div> - 문산공단: 세진4명, 디에스시4명, 현대아이에이치엘6명, 지부2명 - 외동기업은행: ITW경주4명, 우영3명, 다스9명, KBI동국2명, 청우1명, 지부2명 - 용강네거리: 에코10명, 엠에스8명, 플라스틱옴니엄3명, 경주CC 1명, 지부1명 - 금장네거리: 리어코리아9명, 발레오만도6명, 일진베어링4명, 지부2명 - 영천도남공단: 금강6명, 두양정공2명, 현대성우솔라이트5명, 지부2명 </div> ▲미조직 조직화 및 대선 출근선전전	96명
	금장교 네거리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지부:10명, 발레오만도:5명, 민주노총:1명, 리어코리아:5명	21명
5월 22일 (목)	금장교 네거리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6명, ITW경주:4명, 청우:1명, 민주노총:1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4명, 리어코리아:6명, 발레오만도:5명, 당원1명, 민주노총:2명	30명
	양남 한수원 앞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2명, 세진:6명 <div>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2명, 세진:8명 </div>	19명

5월 23일 (금)	터미널 네거리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10명, 현대성우솔라이트:6명, 발레오만도:5명, 청우:1명, 경주월드:2명, 경주CC:1명, 민주노총:2명, 노동당:2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7명, 현대성우솔라이트:6명, 발레오만도:4명, 경주월드:2명, 경주CC:1명, 민주노총:2명, 노동당:1명		52명
	양남 나산초등앞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1명, 세진:6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1명, 세진:7명	15명
5월 26일 (월)	용강 올리브영 네거리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12명, ITW경주:4명, 발레오만도:6명, 청우:1명, 일진베어링:1명, 민주노총:2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11명, 발레오만도:6명, 일진베어링:1명, 우영:1명 - 민주노총:3명, 법률원2명, 여노회:2명, 당원:2명		54명
5월 27일 (화)	계중 네거리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13명, ITW경주:1명, 발레오만도:6명, 청우:1명, 일진베어링:3명, KBI동국실업:1명, 엠에스:21명, 민주노총:2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11명, 일진베어링:2명, 우영:7명, 민주노총:1명 - 여노회:1명, 이주센터:1명, 당원:2명/ 양남: 지부2명		75명
5월 28일 (수)	5개 주요 거점	<div> - 문산공단:세진5명, 디에스시3명, 현대아이에이치엘7명, 명성공업4명, 현담3명, 지부4명 / 26명 - 외동기업은행:ITW경주4명, 우영3명, 다스8명, KBI동국6명, 청우1명, 현담:2명, 지부2명 / 26명 - 용강네거리:에코7명, 엠에스6명, 옴니업3명, 지부1명 / 17명 - 금강네거리:리어코리아9명, 발레오만도6명, 일진베어링6명, 지부2명 / 23명 - 영천도남공단:금강6명, 두양정공2명, 현대성우솔라이트1명, 지부1명 / 10명 </div> ▲미조직 조직화 및 대선 출근선전전		102명
	터미널 네거리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지부:12명, 일진베어링:1명, 청우:1명, 발레오만도:5명, 현대아이에이치엘:10명, 민주노총:4명, 법률원:2명, 당원:3명		38명
5월 29일 (목)	금장교 네거리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13명, ITW경주:4명, 청우:1명, 발레오만도:6명, 리어코리아:7명, 일진베어링:3명, 민주노총:2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10명, 리어코리아:6명, 발레오만도:5명, 일진베어링:1명, 민주노총:2명, 당원1명		61명
	양남 나산초 앞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2명, 세진:6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3명, 세진:6명	17명
5월 30일 (금)	터미널 네거리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13명, 발레오만도:7명, 민주노총:2명, 노동당2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8명, 발레오만도:5명, 현대아이에이치엘:10명, 청우:1명, 일진베어링:1명, 민주노총:1명, 당원:3명		53명
	양남 (월성스포츠센터)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3명, 세진:6명		9명

6월 2일 (월)	용강 올리브영네거리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13명, ITW경주:4명, 발레오만도:7명, 일진베어링:2명, 경주월드1명, 경주CC:1명, 민주노총:2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12명, 발레오만도:6명, 일진베어링:1명, 에코:1명, 다스:1명, ITW경주:1명, 민주노총:3명, 당원:3명		58명
	양남 한수원 앞	▲ 출근선전전 - 금속경주:3명, 세진:5명	▲ 퇴근선전전 - 금속경주:3명, 세진:8명	19명

※ 방송차 주요 거점 유세 및 주말 안강, 황리단길 주변 당원 중심 선거운동

7) 세액공제 사업결과

지회 명	간부 수	정당 당원 수	세액공제 수	무급 전임 수	비고
다스지회	43	3	30	5	조합원 28명 조직
KBI동국실업지회	9	1	0	0	
두양정공지회	5	0	4	0	
디에스지회	22	0	22	0	
리어코리아지회	18	1	9	0	
발레오만도지회	17	3	14	0	조합원 130명 조직
비투지회	8	0	7	0	
세진지회	22	7	15	1	조합원 18명 조직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13	0	12	1	조합원 5명 조직
아진카인텍지회	8	0	2	0	
에코플라스틱지회	38	1	1	2	
엠에스지회	29	1	28	2	
우영산업지회	25	4	21	3	
일진베어링지회	19	4	9	0	
청우지회	4	1	4	0	
코리아에프티지회	9	0	3	0	
플라스틱옴니업지회	9	0	4	0	
현담산업지회	16	0	1	0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9	0	2	0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28	0	28	0	
현대아이에이치엘지지회	21	10	11	0	조합원 170명 조직
현대엠시트지회	15	0	3	0	
현우지회	6	0	3	0	
지부	17	8	3	5	
합계	410	44	236	19	351명

8) 영역별 평가

(1) 진보후보 선정 과정

- 5월 30일 진보정당 및 진보 단체 연합인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대선 경선 출마 결과 70.5%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후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사퇴로 인해 유일한 진보후보로 지지 선언으로 이어졌다.

(2) 조직화 과정

- 지부 운영위 회의에서 대선후보 지지 결정과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최종 기호 5번 진보 대통령 권영국 후보에 대한 경주지부 운영위 차원의 지지 선언과 세액공제에 대해 결의하였다.
- 이 과정에서 대선 운동 결합은 민주노총과 지부 집행위 중심으로 결정되었고, 지회별 세액공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출되면서 확대 간부 수만큼 정도의 자율적인 세액공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 지부는 자율적인 대선 운동방식으로 하되 기본적인 대선 실천 과제를 확정함으로써 권영국 후보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3) 대선 운동 및 세액공제 사업

- 지회별 실천 사업으로는 조합원 출·퇴근 집중 선전전 및 현수막 게첨 과세액 공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 지부는 대시민 선거운동은 지부 집행위 전체 주요 거점 유세차량은 지부 1인 파견 운동방식으로 설정하고 진행되었다.
- 대시민 선거운동은 경주 주요 네거리 / 양남(한수원) 중심으로 5월 20일(화) 계중 네거리 38명의 출근 선전전 시작으로 6월 2일(월) 용강 올리브영 네거리 77명의 퇴근선전전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지부 집행위 중심으로 진행된 대시민 대선 운동이 지회별 자발적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라 볼 수 있다.
- 지회별 선거운동 결합은 발레오만도지회와 세진 지회의 경우 교섭위원 전체가 매일 출·퇴근 선전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고, 청우지회의 경우는 지회장이 출, 퇴근선전전에 함께 하였다.
- 거점별 지회별 결합은 리어코리아지회, 우영산업, 엠에스지회,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일진베어링지회,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KBI동국실업지회, 다스지회, 에코플라스틱지회가 결합 되었다.

(4) 홍보 및 선전 사업

- 조기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자 선출 및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선전, 홍보 사업에 많은 한계점이 존재 하였다.

- 지부는 선거 차량으로 지부 차량 2대(방송차 1대) 까지 총 3대의 차량을 운행했다. 홍보용 방송 차량은 집행부 1인의 전담 운행을 통해 선거기간 내내 경주 곳곳을 순회했고 5번 권영국 후보가 대선에 나왔음을 피력하는 데 일조했다.
-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게시물, 피켓, 단체복)방식
 - 선거용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지회별 1~2장의 현수막 게시와 조합원들에게 권영국 후보 지지 조직화 목적으로 배포되었으며, 별도의 홍보용 피켓 제작을 통해 선거운동 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손피켓의 경우 선거운동원 패찰 없이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제작 후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 영상물 제작(유튜브 및 SNS 홍보)
 - 영상물의 홍보 및 배포는 기존의 경주지부에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쇼츠 형식의 권영국 후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총 9개의 영상이 배포되었으며, 조회수는 대략 2만 6천 회를 기록했다. 사전 기획을 통해 내용을 시기에 맞게 제작된 영상을 퍼트릴 수 있는 지지자들의 배포망과 홍보 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 영상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v8YupKS2EsYVPu9XTzvvKA>

9) 총괄 평가

- 대선 운동 결합 과정에서 전 사업장이 대선 운동에 힘 있게 결합되고 일상 사업을 넘어선 적극적인 운동방식으로 전개되진 못했지만, 지부는 (전 위원장) 조합원 대면 현장 순회 및 지회별로 조합원 대상으로 한 권영국 후보 지지와 세액공제 사업의 실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다만, 조합원 동지들의 저조한 대선(대면)운동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정치 인식을 재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다양한 선전·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통해 대선 운동 기간 현장 조합원 홍보에 활용되었고, 특히 대시민 선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진보후보인 권영국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지부-지회는 대선 운동 과정에서 어느 조직보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자발적인 선거운동 참여를 통해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주체적인 활동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이후 진보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선거시에만 복무하는 선거 결합 방식의 정치일변도가 아닌 상시적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활동과 실천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 경주지역의 대선 결과는 득표율 1.27%로 전체 평균 득표율보다 높은 득표율로 최종 마무리되었지만, 조기 대선을 통해 지역 내 진보 정치의 복원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소중한 가치가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